

아토피에 우수한 산화티탄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은 피부의 표면에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몸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무엇인가 몸이 가렵고 불쾌하게 된다. 이것도 역시 세균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화티탄을 첨가한 처리액에 원단을 침지하여 섬유에 부착시킴으로써 살균효과를 부여한 내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산화티탄은 원적외선을 받으면 미약한 전류가 흐른다. 이러한 전류가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일은 피부 밑 5mm까지 침투하여 살균효과를 발휘한다. 가려움을 없애는 연고 이상이다. 실제 병원에서 20명의 환자에게 이러한 내의를 착용시켜 실험을 한 경우, 아토피라든가 그 외의 피부소양증, 여성의 대하의 가려움에 대하여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이러한 내의는 300회 이상 세탁하여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 단, 전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분이 없으면 살균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결점이 있다. 수분이 없어도 직접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내의인 경우에는 피부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으로 충분하다. 다만 옷옷이나 커튼 등과 같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 수분이 부족한 곳에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는 제한되어 있다.